

AVENU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JULY 2015



Fantastic
Weekend



사물의 언어

티슈 박스와 성냥개비, 돌과 음료수 캔, 대리석과 지폐. 간단한 몇 가지 사물을 병치시킴으로써 일상의 언어를 시로 만드는 예술가. 가브리엘 쿠리의 작품은 일종의 대화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며 즉흥적이고 친숙하고 때론 명상적이다.

가브리엘 쿠리의 작품을 처음 본 건 베를린에서다. 미테 지구의 유명 갤러리 에스터 쉬퍼(Esther Shipper Gallery)를 방문했을 때였다. 갤러리 오너인 쉬퍼의 방엔 리암 길릭의 설치 작품 '리시프로컬 플랫폼(Reciprocal Platform)'이 전시돼 있었고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옆엔 카렌 잔더의 회화가 걸려 있었다. 하얀색으로 칠한 정사각형 캔버스에 포장 없이 화물 택배로 보내 그 과정에서 추가된 스탬프 자국이나 스티커 같은 것들이 그 자체로 회화가 된 작품이었다. 어떤 일의 진행 과정(시간의 흐름)을 캔버스라는 가시적 영역으로 불러낸 점이 인상적이었다. 잔더 작품 앞에 놓인 가브리엘 쿠리의 조각 역시 눈길을 끌었다. 커다란 돌덩이를 반으로 가르고 그 균열 사이에 익숙한 음료수 캔을 구겨 넣은 오브제 작업이었는데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역겹의 시간이 축적된 돌과 1초에 수십 개씩 생산되는 공산품의 부적절한 조화는 그러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의 틈을 확장시켰다.

가브리엘 오로즈코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멕시코 작가들이 현대미술의 자장 안에서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아트

선재센터에서 전시를 마친 멕시코시티 출신의 문학가 겸 개념미술가 아브라함 크루즈비에가스나 국제갤러리를 통해 작품을 선보인 설치미술가 다미안 오르테가 그리고 국내 최초의 개인전을 위해 작품 전체를 신작으로 구성한 가브리엘 쿠리가 대표적 인물이다. 실제로 이들은 같은 시기에 작업적 맥락을 같이하며 가브리엘 오로즈코의 스튜디오에서 수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열에서 가장 젊은 작가인 가브리엘 쿠리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문학에 조예가 깊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적 문법을 지닌다. 심약한 시인의 외모를 지닌 쿠리는 2년 전 햇살이 사랑스러운 도시 LA로 거처를 옮겼다.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유럽에서 전업 작가로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무엇보다 따스한 햇살이 그리워졌다. 멕시코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LA는 삶의 여러 층위를 관찰할 수 있고 이야기가 풍성한 도시다. 열린 태도를 견지하며 사람과 사물을 관찰하는 삶이 이곳에선 가능하다. "LA에 있을 때 휴대전화는 시계이거나 카메라일 뿐이죠." 인터뷰가 시작되자 그는 뒷주머니에서 휴대 전화를 꺼내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네 개의 의자 다리 중 하나에 기대



1 'Probability Chart K2', Wall Drawing, Rocks, Dimensions Variable, 2015. 2 'Bottled Water Branded Water', 2013. 3 멕시코 출신 작가 가브리엘 쿠리(Gabriel Kuri). 4 '99c. Arizona 3X, Halved', 2 Carved Rocks, 3 Crushed Aluminum Drink Cans, 40×46×43cm, 2014. 5 'Waiting, Giving, Spent', 2012.



“서울은 제가 사는 곳과는 많이 달라요. 어제는 재래시장에 갔었는데 좁다란 골목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는 테이블의 높이가 제 키와 맞지 않아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점들이 아주 중요해요. 주변 환경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은 제 작업의 시작이자 끝이죠. 이번 전시는 제가 서울이라는 환경에 반응한 결과물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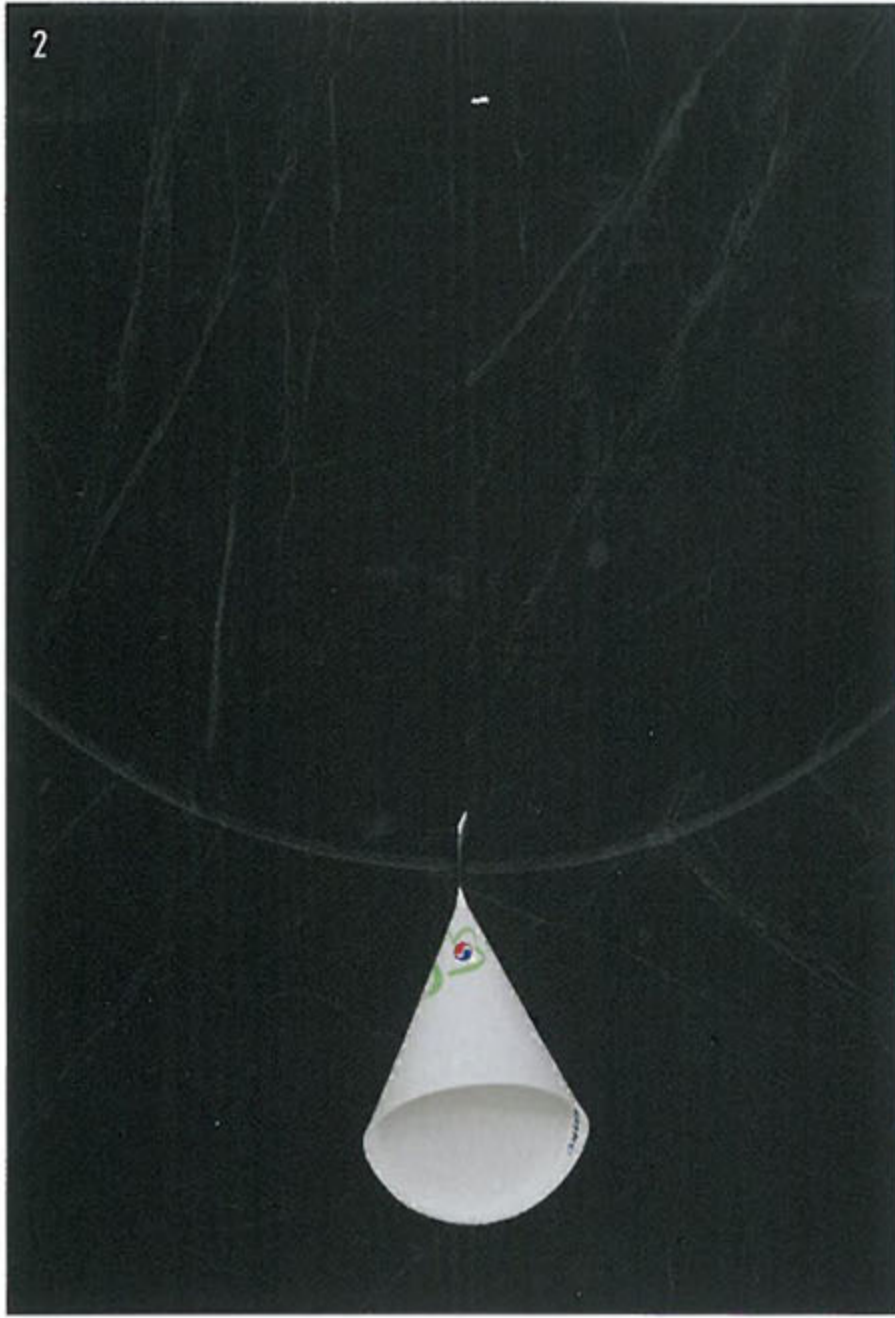
어 놓았다. 그가 사물을 대하는 방식은 일종의 대화를 연상케 한다.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으며 즉흥적이고 친숙하고 때론 시적이다. 현대미술의 난해한 좌표 안에서 가브리엘 쿠리가 특별한 위치에 놓이는 이유다. 작가는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 공통의 감각으로 소통한다. 공중 화장실에 걸려 있는 알루미늄 티슈 박스와 타버린 성냥개비를 병치한 작품 'Waiting, Giving, Spent'는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벌어진 무언의 대화를 표상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기다리고, 주고, 소비되는' 주체가 사물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일정한 범주를 갖듯 사물의 언어에도 감정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두 개의 커다란 돌 사이에 돌돌 말아 접은 양말 세 켤레를 끼운 작업은 그 맥락과 상관없이 온도가 느껴진다. '세 개의 체포된 구름(Three Arrested Clouds)' 앞에서 관람자는 친숙함을 느끼고 사물과 교감한다. “제 작업은 일상의 프로젝트죠. 특별하거나 환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기보다 일상적인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그 재료들로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보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즐기는 연습이 중요하죠.”

서울에 관한 단상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국내 최초의 개인전을 위해 가브리엘 쿠리는 전 작품을 신작으로 구성했다. 그 중에는 삼청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운 벽돌을 사용한 작업도 있고 서울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쟁겨온 '태극마크가 그려진 종이컵'을 응용한 작업도 있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주는 경이로운 면들을 하나하나 채집해 작품 속에 보일 듯 말 듯 숨겨 놓았다. 가브리엘 쿠리의 작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돌은 시간이 축적된 재료이긴 하지만 현재, 즉 지금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과 병치되는 소비재들은 현재성을 갖는다. 작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재를 만든다. 작품이 놓인 공간, 시간, 위치, 네트워크, 심지어 공기까지도 매순간 달라진다는 점을 주지한다. “서울은 제가 사는 곳과는 많이 달라요. 어제는 재래시장에 갔었는데 좁다란 골목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는 테이블의 높이가 제 키와 맞지 않아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점들이 아주 중요해요. 주변 환경에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은 제 작업의 시작이자 끝이죠. 이번 전시는 서울이라는 환경에 반응한 결과물이에요.” 한국의 화폐 단위인 '원(Won)'의 영문 이니셜을 검은 대리석으로 조각하고 그 틈새에 네 가지 화폐를 반으로 접어 끼운 작품 '원 원(Won Won)'은 가브리엘 쿠리의 조형언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네 개의 매끈하게 절단된 대리석 조각들과 그 틈에 꽂혀 있는 화폐들은 언뜻 보기에 무작위



로 배치된 듯 보인다. 하지만 각각의 접힌 지폐의 미묘한 색상 차이는 그것이 끼워진 면적에 따른 높낮이로 인해 일종의 악보를 연상시킨다. 하얀 종이컵들을 대리석의 교차 부분에 박아놓은 작품 'Stock Stock'은 모던한 조각적 요소와 삶의 소비 행태에 따른 '거래'의 개념을 평범한 상징들로 드러낸다. 또 알루미늄 지지대에 얹힌 유색 알루미늄판 롤 작품은 쿠리만의 고유한 조각적 감각을 드러낸다. 보통 시장에서 상품 진열을 위해 쓰이는 알루미늄 롤은 이 작품에서 철제 골조 구조물을 휘감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재료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이분법적 양면성을 환기시키고 보이지 않는 균형과 압력의 지점들을 보여준다. 금속으로 제작된 사생활 보호 스크린 'Privacy Standards'는 병원에서 탈의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법한 감정을 상기시킨다. 쿠리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알루미늄 스크린을 작가는 'Quick Standard'라고 부르는데, 이는 정치적 플래카드와의 유사성을 암시한다. 이면의 폭로와 은폐 같은 정치적, 암묵적 긴장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층 전시장을 가득 메운 'Punctuation Matrix'는 특별히 제작된 네 개의 탁상에 미묘한 색상과 일정한 간격의 격자가 더해져 마치 실험실 또는 연구실 같은 환경을 연상시킨다. 작가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수집한 물품들이 나열되어 작가의 개념적 탐구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비교적 부드러운 방식으로 현대미술의 비평적 지점을 연구한다. 그 맞은 편에는 중력의 흐름을 거스른 듯 수직으로 놓인 바위가 보인다. 그리고 슬리퍼 한 켤레가 그 위에 놓여 있다. 여름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산품이지만 전시장의 고고학적 풍경 안에서 그것은 친숙한 내러티브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쿠리만의 어법이다. 사물의 언어를 끌어내는 그만의 방식인 셈이다. ▮



1 'Three Arrested Clouds', 2011. 2 'Stock Stock', Marble Slabs with Paper Cups, 130×89.4×5.6cm, 2015. 3 'Privacy Standards', Aluminum and Polyester Folding Screens, Aluminum Blankets, Wooden Stocks, 210×358×128cm, 2015. 4 'Won Won', Marble Slabs with Korean Currency, 130×178.8×2.8cm, 2015.

